

광주시-남구, 막장 치달는 인사교류

시 "남구 인사교류 협약 위반"

예산지원 배제 등 페널티 검토

남구 "광주시 과도한 인사권 침해"

애꿎은 하위직·시민 피해 우려

3급 승진 자리를 놓고 광주시와 남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인사교류 협약을 위반했다며 남구청에 이른바 '보복 행정'을 예고했고, 남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9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구의 인사교류 협약 위반에 따라 협약 이행을 중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남구가 지난 18일 자체적으로 4급 이하 자치행정국장을 3급 승진자로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주시는 남구로 발령됐던 부구청장(3급)을 시

로 복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남구가 3급 승진 요인을 가로챘다는 판단이다.

문 부시장은 "올해 상반기 인사를 앞둔 지난해 11월 인사교류협회를 열고 부구청장 인사교류를 논의해 광산구와 북구는 교류에 동의했지만, 남구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시는 계속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남구는 자체 승진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부구청장 인사와 관련해 남구청에 1대 1 교류를 요청하고, 4급 공무원 한 명을 광주시로 전입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

광주시는 일단 남구에게 인사교류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예산지원 배제 등 행정·재정 페널티를 주는 등 이른바 보복 행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미 올해 6급 장기 교육대상자 선발에서 남구를 제외했으며, 앞으로도 남구와 인사교류를 무기한 중단하고, 자치구 전입 인사나 신규 임용자 실무 실습비 지원 중단, 7급과 9급 공개채용 대행 등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또 각종 재정 지원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광주시와 남구의 인

사갈등으로 애꿎은 남구 하위직과 시민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남구는 이 같은 광주시의 조치에 대해 과도한 인사권 침해이자 보복 행정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남구는 2018년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맺은 '인사교류 협약' 가운데 퇴직, 공로연수 등으로 자치구에서 부구청장 결원이 발생하면 자치구는 '자체 승진'을 단행하거나 광주시에 '부구청장' 요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시에서 복귀를 요청했던 부구청장의 경우를 1월 인사 일정에 맞춰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만큼 결원에 따른 남구 자체 승진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남구는 또 해당 협약서가 없다라도 지방자치법상 부구청장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2018년 광산구에 이어 지난해 동구도 광주시와 인사 교류를 하지 않고 자체 승진을 시킨 사례도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광주 우치동물원

풍산개 사육환경 개선 한다

광주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곰이', '송강'의 사육 환경 개선 작업에 나선다.

19일 광주시와 산하 사업소인 우치동물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옮겨진 곰이, 송강은 이송 당시 방광결석 진단을 받고 있었으며, 배뇨장애 등 증상이 심하지 않아 오는 3~4월 수술할 예정이다. 곰이, 송강은 현재 매일 한차례씩 산책하는 모습이 공개되고 있다.

우치동물원은 사육 환경 개선작업을 통해 곰이, 송강의 새끼 '별'을 포함해 애초 이곳에서 지내던 다른 풍산개 등을 실내 사육장에 합사할 방침이다.

다만 사육 환경 개선에 들어가는 적지 않은 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실내 사육장 환경 개선과 CCTV 설치 비용 1억원 등 1억 5000만원을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내부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 반영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검사소 1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인 21~24일에는 안성·이천·화성·백양사·함평천치·진영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누구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어촌신활력사업 공모 전국 최다 선정

17개소 선정...국비 927억 확보

전남도는 2023년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17개소가 선정돼 총사업비 1410억원(국비 927억원)을 확보했다. 어촌뉴딜300사업에 이어 전국 최다 선정이다. 이 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 후속으로 어촌·어항에 대한 생활·경제 거점 조성하고 어항시설 정비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전국 65개소를 선정하는 이번 공모에 전남도는 13개 시·군 38개소를 신청해 17개소(26%)가 선

정됐다. 여수 1곳, 순천 1곳, 보성 1곳, 고흥 2곳, 강진 1곳, 해남 2곳, 무안 2곳, 영광 1곳, 완도 1곳, 진도 2곳, 신안 3곳 등 지역별로 안배했다는 평가다. 이번 사업은 3개 유형으로 나눠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추진된다.

먼저 1유형에 선정된 보성군 '울포항'에는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호텔 등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산물판매시설 및 청년창업공간 등이 조성된다. 2유형은 순천시 용두항 등 6개소가 선정돼 지역문제를 분석하고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액커조직이 구성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각 1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공동체 커뮤니티센터,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어항기반시설 등을 조성한다. 3유형으로 여수시 소평어항 등 10개소에는 어촌·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 50억원으로 방파제·물양장 및 접안시설 등 어항기반시설과 생활안전시설 등이 개선된다.

전남이 수산업과 어촌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어촌의 핵심시설인 항포구 시설의 미비와 낙후된 어촌의 정주여건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어촌주민들의 사업 유치에 대한 높은 열정과 관심, 전남도와 시·군의 면밀한 준비 등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번 공모에 탈락한 지구는 신청한 사업계획을 비교분석해 보다 구체화해 2024년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 명예의 전당' 김영춘 대표 헌액

'효사랑 나눔의 샘터' 설립

24년간 이웃사랑 헌신

효사랑 나눔의 샘터 김영춘(66)대표가 '광주시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19일 나눔과 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김 대표를 '광주시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으로 선정하고 헌액식을 개최했다.

김 대표는 1998년 '효사랑 나눔의 샘터'를 설립하고 결실 우려가 있는 소외계층과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 전달, 떡국 나눔, 김장김치 나눔 등을 이어오고 있다.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보일러 수리, 누수 방지 작업, 벽지·장판 등 도배사랑의 집수리 활동도 펼치고 있다.

김 대표는 특히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관내 경로당 어르신에게 짜장면 나눔 봉사를 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남구 진월동 푸른길 공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주시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으로 선정되면 헌액인증서를 수여하고 시청 1층에 설치된



김영춘(왼쪽) 효사랑 나눔의 샘터 대표와 강기정 광주시장.

'명예의 전당'에 헌액협판이 등재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17건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엄정한 심의를 거쳐 최종 1명을 선정했다.

'광주시 명예의 전당'은 시정발전, 나눔과 기부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을 오래 기억하고 그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이 두 번째로, 첫회에는 4명(개인 3, 단체 1)이 선정됐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공공형 계절근로제로 30만명 확보

전남도가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자 2274명 배정에 이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도입으로 불철 농번기 인력 30만 명을 확보하는 등 일손 부족 대비에 적극 나섰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농가에서 외국인을 3-5개월(C-4, E-8) 단위로 의무로 고용해야하므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농작업이 없는 중소규모 농가에서는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했다. 또 계절근로자 숙소 제공이 가능한 농가만 고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남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보완해 중소규모 농가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했고 그 결과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전남도에서도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 나주 배원농협과 고흥 풍양농협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남도 최초로 공공형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으로 시군에서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소규모 농가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장 김준기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선임

광주시는 공석중인 광주시립미술관장으로 김준기(사진)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을 선임, 20일 광주시청에서 임명장을 수여한다.

일반적으로 미술관장 선임과 관련한 공식 발표가 있을 후 며칠이 지나 임명장을 수여하고 취임식을 갖는 데 반해 이번에는 공식 발표 없이 곧바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방식을 취했다. 김 선임관장의 내정설, 전임 직장 갑질 의혹 등으로 지역 미술계가 반대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은 점으로 보인다.

특히 명절을 앞둔 금요일 임명식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지난 9월 1차 공모에서 '적격자 없음'이 나와 2차 공모를 진행했고 지난 3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김 선임관장을 비롯한 3인이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추천됐다.

김 선임관장이 지역의 반대를 무릅 쓰고 임명됨에 따라 임기 내 지역 미술계와 어떤 관계를 이어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김준기 선임관장은 홍익대 예술학과 출신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전시기획자·미술평론가 등으로 활동해왔다. 가나아트갤러리 공공미술팀장·부산시립미술관 큐레이터·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을 거쳐 제주도립미술관 관장을 역임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3년 계묘년 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가능!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전원 리모델링 갈라강관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